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진실한 일념으로 나라는 자체의 소식을 구하라

참다운 인생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지금까지 마음공부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마음 도리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죽을 때면 벌써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하면서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 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생을 하죠. 모두가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 이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는 생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거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살고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꿋꿋한 자기 중심이,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거를 안다면 이 우주 전체가, 즉 말하자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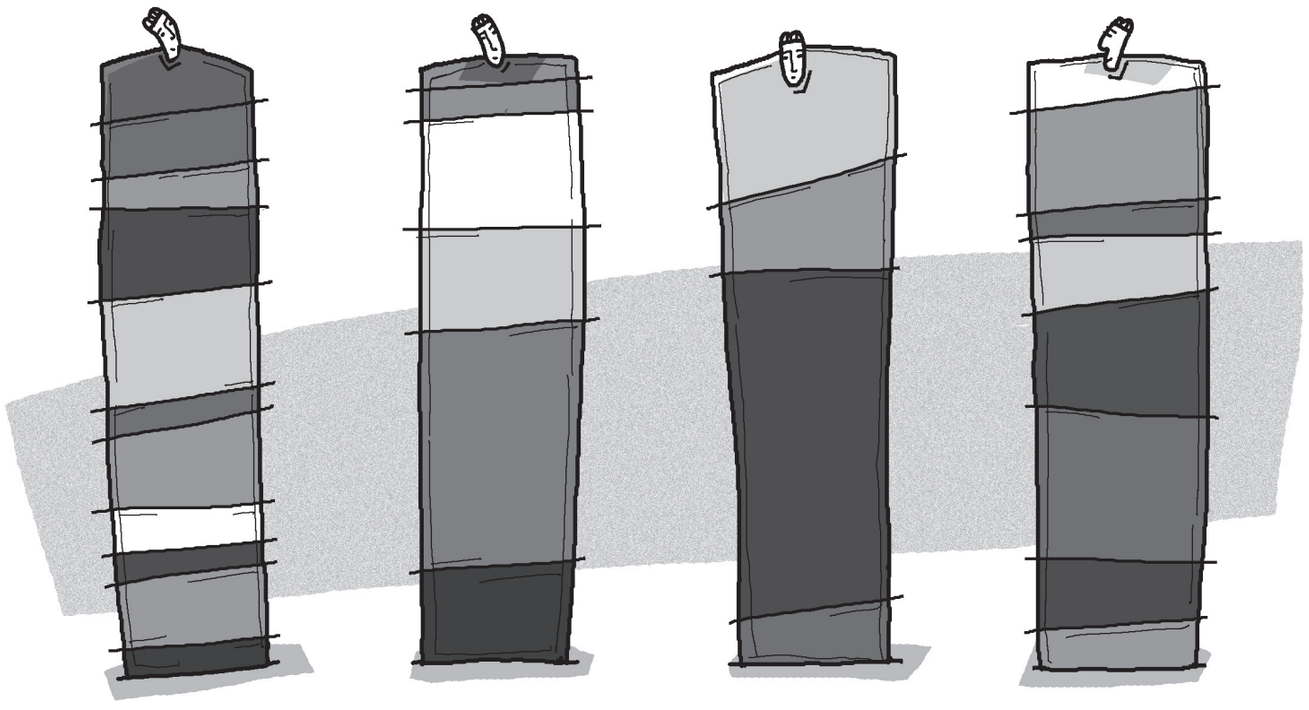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료를 튼튼하게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쓰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한생각을 내면 전체가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굼벵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지요? 요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굼벵이가 벌써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굼벵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굼벵이 껍질 이 자체가 굼벵이가 아닙니다. 굼벵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날 것을 미리 해 놓고서 또 날 때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없어지자마자 벌써 여기에서는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역시 만 9개월이 되는데, 사람도 벌써 여기에서 이게 '내가 벌써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망해 놓고, 여기에서 정망해서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벌써 여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저기에서는 탄생을 찰나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원료를 지속하게 쓸 수가 없죠. 모르면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거니와, 내 집을 바꿔서 좋은 집으로다가 옮길 수도 없거니와, 자유자재할 수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올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 살겠다 못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 좋은 이런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 전체, 뿌리 하나만 싱싱하면 이파리고 뭐고 가장구도 다 싱싱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모든 게, 가환, 우환 이런 모든 그 액난이 다 거기서 녹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 걱정될 게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바쁘니깐 스님 설법도 잘 못 듣고 그랬으나 내가 스님한테 와서 서너 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그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당장 위급해서 이 집을 그냥 다 파산하고 다 몰아갈 상황인데 아, 그날 저녁에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냥 이걸 사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팔아서 그거 갚고 나서 반이 남더랍니다. 그러니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에라, 내일 아침이면 벌써 이걸 다 뺏기고 다 거지가 될 텐데 에라,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곤 아예 편안하게 '내일 죽을 테니까 아예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러고선 가서 잠을 자는데, 죽든지 살든지 편안하더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야, 여기 집 살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팔고 거지가 안 됐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지, 자기를 안 믿어 봤자죠.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를 억겁 년 전서부터 참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나쁜 일을 이렇게 한다 하고 생각이 났더라도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바로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고, 또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면 '이건 안 된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건 된다' 할 때는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게,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